

파충류에 대한 공포심 DNA에 깊게 각인된 탓

김창엽
자유기고가

● “까아악~, 여보 여보, 여기 여기.” 50대 후반의 주부 조모 씨는 서울에서 살다 시골에 내려온 2009년부터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놀라 자빠지는’ 경험을 되풀이하고 있다. 시골 생활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그이지만 ‘뱀’은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어릴 때부터 뱀이 “죽도록 징그러웠다”는 그는 ‘예쁘게’ 그려진 아동용 뱀 캐릭터에도 진저리를 친다.

조 씨의 딸 김모 씨는 곧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다. 김 씨는 엄마와 달리 뱀이 “귀엽다”고까지 한다. 특히 새까맣고 동그란 뱀의 눈이 예쁘지 않냐고 그는 반문한다. 그렇지만 김 씨도 엄마의 시골집을 방문하면 수시로 마주치는 거미나 이런저런 벌레에는 꼼짝 못 한다. “으아아아~, 여기 여기.” 김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시골은 다 좋은데 벌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한다.

개구리가 겨울잠을 깨는 시기, 머잖아 뱀도 동면을 끝내고 기어 나올 즈음이다. 겨우내 다 죽어 사라져버린 듯했던 곤충들의 등장도 임박했다. 친지의 시골집 방문이나 집 밖 나들이가 아니더라도 여기 저기서 벌레와 마주쳐야 하는 계절이 온 것이다.

어떤 사람은 왜 몸서리를 칠 정도로 뱀을 혐오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벌레를 목격하면 소리를 지르며 줄행랑을 칠까? 곤충을 포함해 뱀 등 특정 동물을 유달리 끔찍하게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10% 안팎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의 나쁜 기억이나 경험이 극단적인 동물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어릴 때 벌에 쏘여 고통을 받은 적이 있다면 벌을 기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곤충이나 뱀 등과 관련해 불쾌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관념을 되찾는다는 게 정설이다. 바꿔 말해, 나쁜 경험이나 기억만으로는 벌레나 뱀에 대한 유달리 큰 공포심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최근 십수 년간에 걸쳐 이뤄진 실험이나 조사에 따르면, 일부 동물에 대한 공포심은 선형적일 개연성이 크다. 학습이나 경험 없이 그 같은 공포심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실제로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가 주도한 한 실험 결과, 뱀이



인간의 조상 격인 포유류가 파충류의 먹이가 되던 시절 갖게 된 파충류에 대한 공포심이 유전자에 각인된 사람들은 유난히 뱀을 싫어한다고 한다.

나 벌레를 유달리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달리 자연 풍광과 뱀, 벌레 등이 섞여 있는 이미지를 보여줬을 때 뱀과 벌레를 더 빨리 식별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뱀이 죽도록 싫다는 귀촌 주부 조모 씨도 이런 부류에 속한다. 조 씨는 가족들과 밭에서 일을 하거나 동네를 산책할 때도 뱀을 거의 예외 없이 가장 먼저 발견하곤 한다.

뱀이 아니더라도 파충류는 비교적 인간의 애호를 받지 못하는 동물군에 속한다. 주변을 둘러봐도 도마뱀이나 악어를 사랑스럽게 느끼는 사람은 흔치 않다. 뱀을 포함한 파충류에 대한 혐오증 혹은 공포심을 선형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전문가들은 인간의 조상이 가진 파충류에 대한 공포가 유전자에 각인된 탓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의 조상 격인 포유류가 파충류의 먹이가 되던 시절 DNA에 새겨진 흔적을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달리 뱀 등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뱀이나 벌레에 대한 공포심과 혐오감은 여간해서는 치유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학습을 통해 일정 부분 개선이 가능한 측면도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공포심이나 혐오감에 과도하게 좌우될 일은 아니다. **6**

동영상

삶의 궤도 수정 내면의 힘 알려주마!

윤용근
위클리 공감 기자

● 절해고도나 깊은 산속에서 홀로 사는 사람을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위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기 쉽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가 바라는 나와 지금의 내가 많이 다른 모습에 실망하며 괴로워한다. 만약 지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대로 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 걸까.

여성커리어상담사로 활약하고 있는 저자는 수많은 여성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여성들만의 독특한 내면의 패턴이 있음을 발견한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해도 수백 년에 걸쳐 여성들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배제돼왔다. 그러다 보니 여성의 내면에도 약자의 입장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여성들이 분발하지 못하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여성들이 무엇인가에 도전해보려 할 때 가장 많이 발목을 잡는 건 ‘나는 안 돼. 아직 전문가가 되려면 멀었어’라는 생각이다. 즉 내면의 강력한 비판자가 여성들의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고정된 틀에 가둬놓고 습관화한다. 이런 목소리에 따라 순응하거나 행동을 하면 위험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그 무언은 절대 이루지 못한다.

무엇인가에 도전장을 던질 때 불쑥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거나 최악의 사태를 떠올려 지레 겁을 먹는다. 여기에 지금까지 속해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두려움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저자는 “두려움이 닥치더라도 힘들겠지만 과감하게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뎌야 한다.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야 두려움의 실체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누가 보아도 유능한 여성이 과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숨어 있는 심리는 무엇일까. 먼저 꿈이나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다. 또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밝혀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완벽해지기 위한 준비에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계속해서 수정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어도 타인의 의견만 모을 뿐 자신만의 의견은 내세우지 않는다.

나에게 맞는 천직은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을까. 저자는 여덟 가지 패턴을 잘 챙겨보라고 말한다. 특정한 이슈나 문제에 분노와



나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타라 모어 지음 | 오세웅 옮김 | 문학테라피 | 328쪽 | 1만5000원

고통을 느끼는 경우, 강력하고 뚜렷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경우, 강한 저항감을 느끼는 경우, 끓어오르는 에너지와 정의감 그리고 의미에 특별한 열정을 느끼는 경우, 어떤 일을 통해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 등이 천직일 개연성이 크다.

진짜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기는 어렵다. 설령 그것을 찾았다 하더라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도 막막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다양한 상담 사례를 제시해 우리 삶을 만드는 일과 관계, 행복에 관한 여러 결정이 정말 우리가 원한 것인지 일러준다.

환경과 조건, 스스로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것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단지 그것을 찾아내고 실천을 못 할 뿐이다. 여성들 각자가 지니고 있는 내면의 힘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함을 말하고 있다. **G**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크게 성공하기

관광에 아이디어를 더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관광을 더하면, **성공**

제6회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2016. 2.24(수) - 3.23(수)
www.tourventure.or.kr



| 참가 자격 |

예비창업관광사업 부 문

A그룹(해내리) : 관광분야에 적용 가능한 우수한 아이템으로 창업계획 중인 예비 창업자
B그룹(빛내리) : 관광관련 신규시장 창출이 가능한 창업 7년 이하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 지역할당 : 강원, 경북, 전남, 제주, 충남지역 소재 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선발하는
B그룹 지역할당제로도 신청가능(홈페이지 참조)

창조관광사업 부 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등록증상
적합한 업체 및 업종의 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업력무관)
◇ 제1회 ~ 제4회 예비창업관광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예비창업관광기업(단, 제제 대상기업 제외)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www.tourventure.or.kr) 참조

| 참가 형태 | 참가자격을 갖춘, 개인·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팀(팀 인원 제한 없음)

| 응 모 방 법 |

참 가 신 청 서 : 공모전 홈페이지(www.tourventure.or.kr)에서 작성
사 업 계 획 서 : 지정 사업계획서 양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작성 후 온라인 접수
문 의 :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운영사무국(02-6395-3127)

※ 접수기한 : 3월 23일(수) 15:00까지, 우편접수불가

| 수상자혜택 |

예비창업관광사업 부 문

A그룹(해내리) : 총 00개 사업, 개별 사업화자금 2,500만원 지원(사후정산)
B그룹(빛내리) : 총 00개 사업, 개별 사업화자금 2,500만원 지원(사후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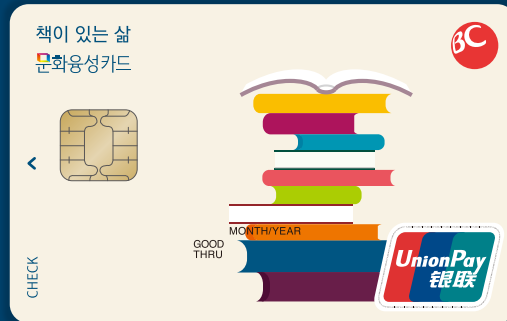
창조관광사업 부 문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확인증 수여
◇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 주목적 투자대상 여부 평가시 가점부여 등 투자유치 관련 지원
◇ 창조관광사업자 대상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 융자 허용

※ 창조관광사업부문은 별도 사업화자금 지원 없음

책이 있는 삶, 문화융성카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문화융성카드가 함께 합니다.



도서 할인

지역서점 이용 시 15% 청구 할인

도서 할인 서비스 제공 조건 안내

전월 이용 실적	월간 할인한도
10만원 이상	월 1회, 매출 건당 5천원 할인 한도
30만원 이상	월 2회, 매출 건당 5천원 할인 한도

영화 할인

영화 2천원 청구 할인

CGV / 롯데시네마 / 메가박스 / 인터파크 2천원 청구 할인

스포츠 할인

4대 프로 스포츠 이용권 2천원 청구 할인

프로야구 / 프로축구 / 프로농구 / 프로배구 2천원 청구 할인

※ 영화/스포츠 할인 서비스는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 시 제공됩니다.

CJ ONE 멤버십

CGV / 뚜레쥬르 등 CJ ONE 가맹점에서 이용 시
CJ ONE 포인트 적립 및 사용

문화 플랫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 문화 생활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공연 및 문화생활 할인 서비스